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드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많은 아름다운 가정이 그 아름다움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회복할지 말씀을 보며 함께 살펴봅시다.

1.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1절)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도 살필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알고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이를 반복할 때 도움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자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도움을 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온유하게(부드럽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왜 잘하지 못하냐고" 잔소리하며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문제를 꾸짖어서는 안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고 섬기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2. 서로의 짐을 져 주는 가정 됩시다.

(2절)가족 모두에게는 저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 주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가족의 짐을 져 주면서 기쁨과 슬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고 져줄 수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3.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가정 됩시다.

(5절)서로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각자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각자 자기 모습과 역할에 맞게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에게 미뤄서는 안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 말씀 속에서 살펴본 세가지 교훈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생각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해 봅시다.

2024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2024 추석 가정예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 같 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가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 106번 감사절(2) ----------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족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가 족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 족 :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말씀 ---------- 갈라디아서 6장 1-5절 ---------- 설 교 자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설 교 ----------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 설 교 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되세요